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갈라디아서 1:1~2:10.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에 의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가르쳐졌다. (15~25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인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의 다음 설명을 읽는다.**

“몇 주 전에 저는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동부로부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회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하는 어떠한 승객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평행의 길이 많ی 있다는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정말로 나은 것은 아니며 단지 다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길들은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교회에 속하든지 다른 어떤 교회에 속하는 것 못지 않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 만약에 학교가 그러한 철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모든 학생이 서로 다른 길을 통하여서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안하든, 시험에 합격하든 안하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학위를 받게 되고 자기가 택한 학위를 받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변호사, 의사, 기사 학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맡겨서 수술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은 종류의 교육이 왜 그들이 택한 직업에 대해 그들을 준비시키지 못하였는지를 질문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나 영적인 문제나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한 교과 과정이 있듯이 필수적인 의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규정된 합당성의 기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회피하고 또 거기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을 마친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5년 10월, 106쪽; 또는 성도의 빛, 1986년 1월호, 91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의 왕국에서 그분처럼 되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 모든 의식, 모든 성약을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도 참된 복음이 이 지상에 존재한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에베소서 4:5, 13 참조)

다음 구절과 해당되는 질문을 읽고 이에 대해 토론한다. 각자의 경전에 그 대답에 밑줄 그어 할 수도 있다.

갈라디아서 1:6~9 참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다른 복음 계획의 가르침들이 왜 사람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갈라디아서 1:10 종종 구주의 가르침보다도 인간의 가르침이 일부 사람들에게 더욱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11~12 바울은 경전과 자신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종교적 훈련으로부터 복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으며 또한 개심한 이후에 의심없이 교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9:4~6 참조) 복음을 배우는데 왜 계시가 그토록 중요한가?

바울은 확신과 권능으로 복음을 가르친 비교적 새로운 개종자였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확고한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을 두고 있음을 관리 역원들이 알기를 원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1~2, 9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 말했는가? (요한복음 1장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40~42절 참조)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 그들 모두가 같은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교리와 성약 1편 30절을 읽는다. 구주께서 선지자와 사도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바울의 시대에 지상에 있던 것과 똑같은 참된 교회를 회복하셨음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나누도록 권유한다.

갈라디아서 2:9~14. 사도들의 하나됨은 교회 회원들에게 힘의 본보기를 보여준다. (15~20분)

열세 자루의 연필 또는 크기가 같은 막대기, 그리고 고무밴드 몇 개를 준비한다. 자원자를 찾아서 연필 한 자루(또는 막대기 하나)를 부러뜨리게 한다. 나머지 연필들을 고무밴드로 꼭 묶어 한 묶음으로 만들고 다른 학생에게 그 묶음을 부러뜨려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연필을 한 묶음으로 만들었을 때 부러뜨리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가?

•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읽는다.**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진교의 악수를”(수용과 지원) 받았다는 것이 왜 중요하였는가?

• 교회 지도자들 사이의 하나됨이 어떻게 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또 교회 사업을 관리하는 데 축복이 되는가?

베드로가 처음에 안디옥으로 갔을 때, 공공연하게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이 상황은 자신들은 이방인과 교제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사도 야고보와 함께 도착하였을 때에 변하게 되었다.(갈라디아서 2:11~12 참조) **갈라디아서 2장 13~14절을** 읽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베드로가 이방인 개종자들을 떠나 유대인 회원들과 함께 먹으러 갔을 때 누가 베드로의 행동을 따랐는가?

•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 베드로와 바울이 이 일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갖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해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는다면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약화될 것인가?

명백한 이 갈등에 대해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다음 설명을 나눈다.**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 개종자들을 거스를까봐 두려워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 그 상황에 대한 완전한 기록을 갖고 있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베드로가 자신은 모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믿게 하려 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신약교리 주해서, 2:463~464)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화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을 읽는다.**

“인간은 모두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과 경험에 입각해 토론합니다. 주님의 사업을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법을 의논합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서두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끝나기 전에 만장일치가 이뤄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이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님 자신도 그와 같은 의견의 일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79쪽; 또한 성도의 빛, 1993년 1월호, 59쪽 참조)

우리는 주님의 사도들의 하나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동료 회원들과 하나가 될 때 큰 힘을 찾을 수 있다.